

해방기 서울신문사의 *Song of Ariran* 번역과 중간과 민족주의의 발현

김 예 진
(성균관대)

1. 서론

해방기¹⁾는 잡지 및 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창간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번역 역시 잡지와 신문을 통해 활발히 소개되던 시기였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 누구나 자유롭게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인섭 외 2001: 153), 그에 따라 좌·우의 정파들이 국가 설립 국면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창구로 신문사들을 접수 및 설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독립국가 수

1) 해방기: 해방기를 정부수립 전인 1948년까지 보는 시각도 있고,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까지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이데올로기 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관점 하에 1948년까지를 해방기로 정의하기로 한다.

립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열강들은 조선에 민주적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고 4대 강국-미국, 소련, 중국, 영국-이 최장 5년간 조선을 신탁통치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이 조선에 알려진 직후, 조선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대부분 강력한 반탁 노선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좌익 측은 찬탁으로, 우익 측은 반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치인들은 정치적 분화를 거듭하였고, 결국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미소공위, 외국군 철수문제, UN 감시 하 총선거 실시 문제 등,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문제들에 있어서 각 언론사는 기사와 번역물을 통해 서로 다른 논조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였다(신인섭 외 2001: 164-71).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방기에 서울신문사의 『신천지』에서 최초로 소개된 작품인 김산, 님 웨일즈의 공저 *Song of Ariran*의 번역을 연구하고자 한다. *Song of Ariran*은 1941년 뉴욕 존 데이 출판사(John Day Publishing)에서 출간된 작품이다. 님 웨일즈(Nym Wales, 본명 Helen Foster Snow)²⁾가 중국공산당과의 연합을 통해 조선 독립을 모색하였던 독립운동가 김산(본명 장지락)을 우연히 만나 그의 구술과 그가 남긴 기록을 정리하여 영어로 출간한 저작인 것이다. 이 작품은 1946년 10월부터 『신천지』에서 총 12회,³⁾ 번역물 중 최장기간 동안 연재되었다. 그러나 1948년 1월호 출간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재가 중단되었고, 결국 완역되지 못하였다.⁴⁾

*Song of Ariran*을 번역한 기관인 서울신문사는 당시 미군정의 영향 아래에 있던 신문사이며, 『신천지』는 해당 신문사가 발간한 3종의 정기간행물⁵⁾ 중 하

-
- 2) Helen Foster Snow: *Red Star over China* 등의 저서로 유명한 Edgar Snow의 배우자로, 1930년대부터 중국 등지를 다니며 중국 혁명 등에 관한 글을 남긴 유명 저널리스트.
- 3) 잡지 『신천지』나 「아리랑」과 관련된 여러 논문에서 저자들은 *Song of Ariran*이 총 13회(고명철 2016; 양진오 2019) 혹은 14회(이봉범 2010) 번역 연재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점검 및 오영식(2014)의 『신천지』 총 목차 목록을 검토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총 12회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 4) 마지막 연재인 1948년 1월 번역본에서 역자/편집자는 “차후계속 이라는 말로 해당호 원고를 마무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자면 역자/편집자는 1월호 출간 당시까지 *Song of Ariran* 번역이 중단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 『신천지』는 전체 기사 중 25-30%를 번역물에 할애하여(박재은 2008: 14) 다른 잡지들에 비해 더 많은 번역물을 소개하였다. 또한 1949년에 신문사가 국유화되기 전까지는 특정 저자의 저작을 더 많이 번역하거나 특정 저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재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둔 직후부터 미군정이 “민주주의 이식을 대한정책의 핵심으로 공포했고 1946년 중반 조선정판사위폐사건을 시작으로 미군정의 좌익 세력에 대한 박해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산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의 독립 활동을 그린 이 작품이 『신천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ong of Ariran*이 번역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미군정 및 서울신문사의 정책 등을 살피고, 이 정치적 상황이 번역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제도적 번역

일반적으로 번역학에서 제도적 번역 혹은 기관 번역은 번역자가 구체적 기관에 소속되거나 혹은 기관에서 고정적으로 의뢰를 받아 기관을 위해 번역을 하는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강지혜 2005: 10). 브라이언 모섭(Brian Mossop)은 회사, 정부, 신문, 교회, 출판사 등 실제로 번역을 생산하는 단체를 기관의 예로 든 바 있다(1990: 342). 하지만 기관에서 번역되었다고 해도 모든 번역이 제도적 번역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카이사 코스키넨(Kaisa Koskinen)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행해지면서 해당 기관의 목소리로 인지되어야 제도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2008: 22).

텍스트가 한 구체적 기관 안에서 번역되었을 때, 그 텍스트는 해당 기관의 이데올로기와 규범, 정책과 무관하게 번역될 수 없고, 오히려 번역의 방향성은 “상당한 정도로 번역자가 작업하는 기관의 목표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Mossop 1990: 343). 번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규범과 상황에 의해 제한되며

5) 『서울신문』, 『주간 서울』, 『신천지』

이러한 “기관의 규범과 상황 은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들이 기관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든다(Kang 2014, 475). 즉, 기관에 속한 번역가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황에 구애받는(situated) 의미 생산 및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기관적 충성도(allegiance)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ibid.: 470). 『아리랑』은 해방기 서울신문사에서 발행되어 “서울신문사의 목소리로 인식되던 『신천지』를 통해 번역된 제도적 번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번역이 “번역물이 생산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그 상황을 정의하고 형성 한다면(ibid.: 470), 『아리랑』 번역 역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은 물론 기관의 사회,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일정 부분 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2.2 서울신문사와 『신천지』

해방기 초기 미군정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미소공위를 장악하여 한반도에 미국 친화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선의 우파 세력을 기반으로 미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우파들의 거센 반탁운동으로 인해 미군정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2차 미소공위가 개최될 때까지 미군정은 미소공위 및 좌우합작 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중간파들을 육성, 지원하여 이들을 통해 미소공위를 장악하고 향후 민주적 정부 수립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김동선 2014: 157).

당시 중간파는 좌·우에 치우치는 대신 두 세력의 힘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힘을 근거로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던 정치적 활동가들의 집합체였다. 좌우합작을 추진한 중간파는 “한국문제 해결 방식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고, 좌우합작한 국내의 통합력을 기반으로 미소공위를 재개 시키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참여, 동조함으로써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던 정치세력을 의미한다(김인식 외 2005: 7). 미·소 사이의 협조를 유도하되 미·소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경계하며 결국에는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즉 반제 민족자주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해방기 중

간파들에게 민족주의란 민족자주, “국제세력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수립노선 표방 및 “중도적 대외 협력 추구는 물론,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민족의 단결과 자주독립 발전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김인식 외 2005: 22-30).

*Song of Ariran*을 번역하였던 기관인 서울신문사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후신이다. 일제 패망 후 미군정의 귀속재산이 되면서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사로 재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정책, 즉 중간파 기용 정책이 반영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서울신문 설립 초기부터 사장직을 맡았던 하경덕은 독립운동 단체인 동계사⁶⁾와 홍사단⁷⁾에 가담하고 중간파 위주로 구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⁸⁾에 참여하였던, 중간파와 노선을 같이한 인물이었다(김동선 2016: 241-47). 또한 서울신문사의 임원진, 주필, 편집진에는 신간회 출신, 민족자주연맹⁹⁾ 및 그 정당인 민주독립당 출신, 남조선과도정부입법위원의 관선의원 출신들이 속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간파와 일정 부분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김동선 2010: 188-89), 즉, 반제, 민족제일, 자주국가 수립이라는 중간파 민족주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사의 조직을 고려한다면 『신천지』 편집진과 집필진이 진보적 중간파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해방기 『신천지』의 편집 및 발행을 총괄한 출판국장이었던 김무삼과 정현웅은 모두 남북협상을 지지한 중립적 인사들이었다. 특히 편집체제와 필자동원까지 담당하였던 정현웅은 범좌익계열 문화단체에 속한 중간파 인사였다(이봉범 2010: 233). 집필진들 역시 조선학술원¹⁰⁾ 소속 지식인, 과학자들, 민족문화연구소¹¹⁾

-
- 6) 동계사: 1912년 신규식에 의해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상하이 한국인의 중심조직으로 역할을 다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web).
 - 7) 홍사단: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에 의해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 건전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을 훈련시켰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web).
 - 8)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946년 5월, 1차 미소공위가 소득 없이 휴회되자 미군정이 김규식,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정권 인도를 위해 구성하였던 과도기적 성격의 입법 기관. 모스크바 삼상회의 협정에 의거하여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 작성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web).
 - 9) 민족자주연맹: 1947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발족된 중도적 정치 조직(한국민족문화대백과, web)

소속 지식인, 비판적 자유주의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자거나 진보적 정당인, 진보적 문화인, 교육가 등 진보적 중간파였다(ibid.: 233). 당연히 번역가들도 무작위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긴 힘들다. 특히, 당시 민족문화연구소에 속했던 옥명찬과 비판적 자유주의 저널리스트 채정근 등이 이 잡지를 위한 역자로서 여러 주요 번역물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번역자 선정 역시 진보적 중간파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ibid.: 233). *Song of Ariran*을 번역한 신재돈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역자 서문에서 드러난 그의 뜨거운 민족의식과 김산에 대한 그의 평가, 그가 『신천지』에 기고한 기사(1946)에서 드러난 반봉건, 반식민 의식을 볼 때¹²⁾ 그 역시 서울신문사의 정치 이념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신문사 및 『신천지』 편집부는 좌·우를 망라하여 유사한 정치적 목적, 즉 반제, 좌우합작을 통한 자주독립국 설립이라는 목표를 가진 활동가들이 연합된 조직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천지』 출판의 경우 서울신문사의 중역들과 편집부장, 문화부장이 모두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신천지』 발간의 총책임자인 출판국장이 실행에 옮기도록 되어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web; 이봉범 2010: 222). 서울신문의 국유화 이후 편집자로 활동했던 김운성은 국유화 전 서울신문 편집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기사를 선택하여 번역하였기에 기사가 편향되었다고 회고한다(1965: 235). 이는 다시 말하면, 임원과 편집진이 잡지의 전체적 방향은 물론이고 번역될 텍스트 역시 선택하는 등, 잡지가 전달할 “이야기 생성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한 『신천지』는 그 영향력에 있어 해방기 여느 잡지들을 능가하였다. 『신천지』는 1946년 1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발행되면서 동시기에 발행되었던 간행물들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잡지가 되었다. 이는 이 잡지가 해방

10) 조선학술원: 1945년 8월, 백남운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술, 학술, 문화 방면을 중심으로 신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하였던 단체(자료대한민국사 web).

11) 민족문화연구소: 1945년 해방 직후, 백남운이 국학 연구를 위해 설립한 기구.

12) 『신천지』 1946년 10월호에 실린 「現代中國社會의 封建的遺制」라는 기사에서 신재돈은 중국에는 여전히 반(半)식민지성이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논하는 동시에 중국의 봉건적 제도가 현재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직후부터 정부수립,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시기의 사상적 질곡과 정치적 격변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의미기도 하다(이봉범 2010: 210). 또한 이 잡지는 그 발행부수가 2만부에서 3만부에 육박하였고(최덕교 2004: 460; 김윤성 1965: 235) 지식인과 학생, 일반인을 모두 포괄하는 독자를 거느리며(이봉범 2010: 221) 오피리언 리더의 역할을 하였다.

기관의 인적 구성과 운영진 및 편집진의 정치적 지향이 자연히 잡지의 번역용 기사 선택 및 번역가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강지혜 2005)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또한 『신친지』의 당시 시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Song of Ariran* 번역은 좌우합작, 반제, 민족제일, 자주적 국가 설립이라는 중간파적 민족주의 이념을 번역에 투영하여 해방기 조선인들의 국가 설립과 관련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려 하였던 잡지 주체의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울신문사가 번역을 통해 조선인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모나 베이커(Mona Baker)의 사회적 내러티브 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Song of Ariran*이 어떠한 연유로 선택되었는지, 번역 과정을 통해서는 결텍스트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텍스트가 어떠한 변형을 겪었는지, 또한 그러한 변형은 미군정 및 서울신문사의 중간파 육성 정책과 그들의 민족주의를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3. 연구 방법: 사회적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프레이밍

사회적 내러티브란 공적이자 사적인 “이야기로서 인간의 행동을 인도한다(Baker 2010a: 25). 내러티브는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 큰 규모의 사회적 구조 사이의 차이 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곧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인 내러티브가 “그 삶을 구성하고(constitute) 해석(interpret) 하며 “이야기 화자가 살아내고 이해하는 세상을 묘사한다는 의미이다(Ewick and Silbey 1995: 198에서 인용). 즉, 인간은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 하며 “내러티브와 내러티브특성(narrativity)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 한다고(Somers 1992:

600)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러티브에 노출된 개개인은 수동적으로 내러티브를 무조건 수용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자들로(Fisher 1985: 85), 번역가를 포함한 내러티브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호의적으로 전파할 내러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Baker 2010a: 30). 그러므로 이러한 내러티브들은 연대순으로 엮어 놓은 이야기기도, 발생한 사건들을 편견 없이(undifferentiated) 열거해 놓은 이야기기도 아닌, 독자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실제 세계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도록 일시적으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들이다(Baker 2010b: 117).

이러한 취사선택의 방식을 베이커는 “프레이밍 으로 설명한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 내러티브는 “객관적 이고 “사실적 인 실체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지만, 내러티브 발화자 및 수신자가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에 따르면, 프레임에는 소극적 프레임과 적극적 프레임이 존재한다. 우선 소극적 프레임은 “어떠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발화의 의미에 대한 자각 을 의미하며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프레이밍은 자신만을 위한 의미를 형성한다 고 말한다(Baker 2010b: 118). 즉 소극적 프레임은 개인의 해석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적극적 프레임은 “행동주의(activism) 현상의 핵심 으로, “사건을 ‘의도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타인들을 유도하는 기대(anticipation) 구조를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고, “해당 사회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지배적 해석에 직접적 도전 을 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ibid.: 118). 즉, 적극적 프레임은 사회적으로 특정 관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베이커는 번역을 통한 적극적 프레이밍에 주목하여, 번역가들의 선택이 “독자의 사회적 세계를 형성하는 내러티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선택은 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는데 공헌한다고 주장한다(2010b, 119). 한편,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는 번역가는 일반적인 번역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이데올로기 하에 조직된 단체(Baker 2010a)나 언론사 및 정부 기관 역시(Harding 2012; 2014) 조직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번역을 통한 적극적 프레이밍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

여준 바가 있다.

소머스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존재론적(ontological) 내러티브는 한 개인에 대한 내러티브이며 공적(public) 내러티브는 개인보다 더 큰 단위, 즉 가족, 직장, 정부, 국가 단위의 문화적, 제도적 단체에서 공유되는 내러티브이다. 개념적(conceptual) 내러티브는 학계에서 소비되는 내러티브를 의미하며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거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가 번역을 통해 프레이밍 되는 방식 역시 여러 종류가 있다. 모호성 프레이밍(framing ambiguity), 시공간적 프레이밍(temporal and spatial framing),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레이블링(labeling), 참가자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선택적 전유와 레이블링, 그리고 참가자 재배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도착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택적 전유는 “원천 텍스트에서 부호화된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 발화, 내러티브가 포함된 더 큰 내러티브의 여러 측면들을 억누르거나 강조하거나 혹은 상술하기 위한 생략 및 첨가의 패턴을 의미한다(Baker 2006: 114).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어난 사건 모두를 자세히 배열할 수도 있지만, 일련의 사건, 경험들 중 일부만 선택하여 자신의 가치적 기준에 따라 재배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Baker 2010b: 118). 이러한 선택적 전유는 단어, 구, 문장과 같은 미시적 텍스트에서는 물론 번역 대상 텍스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Baker 2006: 74). 레이블링은 내러티브 속 주요 항목을 위해 개인, 장소, 그룹, 사건 등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ibid.: 112). 제목 번역이 레이블링에 속한다. 또한 결텍스트와 본문 번역을 통한 참가자 재배치는 번역을 통해 특정 사건에 관계된 참가자 사이의 위치와 상호 관계를 재조정하여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는 전략이다(ibid.: 132). 이 세 가지 프레이밍 방식을 기반으로 *Song of Ariran*의 번역본, 「아리랑」의 결텍스트 및 본문을 분석하여 서울신문사가 번역을 통해 어떠한 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였는지, 그 내러티브를 통해 신문사는 국가형성기 조선인들의 정치적 세계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는지 살필 것이다.

4. 번역 텍스트 분석

4.1 번역 대상 텍스트 선택

*Song of Ariran*은 독립운동가 김산(본명은 장지락)의 일대기다. 김산은 어린 시절 3.1 운동의 비폭력주의와 열강의 이중성에 실망하여 압록강을 건넌 후, 신홍무관학교와 독립신문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동휘, 이광수, 안창호 등에게 혁명가로서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홍사단과 의열단을 거친 후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격동기 중국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한다. 중국의 국공합작에도 참여하였지만 국공합작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대중운동에 전념하다 1936년, 중국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좌·우에 상관 없이 결집시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설립한다.

그 여정을 그린 글에서 드러나는 것은 “생사의 경계를 교차하는 상황과 여건에서도 패배하지 않은 인간, “투쟁의 고비마다 국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대신 “민족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모델, 또한 중국공산당원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은 인간의 전형이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선 절대 꺾이지 않은 맑은 혼이었다(양진오 2019: 298-99; 304-05). 즉, 조선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유수의 독립운동 단체를 거쳤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에 몸담았지만 조국광복을 한 순간도 잊지 않은 철저한 민족주의자 김산의 정신을 그린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독립을 모색했던 개인의 독립운동사가 담긴 작품이 선택 번역된 것은 서울신문사 구성원들을 비롯한 중간과 민족주의의 좌우합작 정신이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김산의 이야기는 김산 개인의 일대기인 동시에 작품에 등장하는 유명 독립 운동가들과 단체, 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수많은 무명의 조선인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오마주기도 하다. 해방 후 또 다시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된 시국에서 독립을 위해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공산주의자의 일대기를 선택한 것은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모두를 포괄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반추해 자주 독립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잡지주체들의 의지 (이봉범 2010: 243)였던 것이다.

4.2 결텍스트 분석

결텍스트는 “텍스트 독서 행위 전체를 실제로 총괄하는 인쇄된 텍스트의 주변부 로(Genette 1997.:2에서 인용), 텍스트에 대한 부차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독자들이 작품을 더 잘 수용하고 (작가가 보기에)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독자가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ibid.: 2)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역자는 결텍스트를 통해 원천텍스트 저자의 서문을 반박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자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Baker 2010b: 121-24).

주네트는 결텍스트를 그 위치에 따라 크게 두 종류, 즉 주변텍스트(peritext)와 바깥텍스트(epitext)로 나누었다. 주변텍스트는 한 텍스트 내부에 위치한 텍스트로, 제목, 저자명, 서문 등과 함께 텍스트 내의 작은 공간에 위치한 챕터 제목이나 각주 등을 포함한다(1997: 5). 바깥텍스트에는 물리적으로 책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텍스트와 관련된 텍스트, 즉 인터뷰, 대화, 서신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변 텍스트, 그 중에서도 제목, 저자명, 서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4.2.1 제목 번역

「아리랑」의 원제는 “*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 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목 “*Song of Ariran* 은 책 표지의 제일 윗부분에 크게 적혀 있고, 부제인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 은 저자들의 이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부제는 저자들의 이름과 비교해서도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원천텍스트의 제작자들이 “한국인 저항자의 일대기 라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시장 내에서의 조선의 위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번역 기사에 실린 제목과 부제목의 번역은 회차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 위치를 보인다. 아래의 표 1에서 보이듯이 제목과 부제목의 번역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 우선 표에서 제시된 첫 회 표지에는 영어 원제 “*Song of Ariran* 이 페이지의 가장 위쪽에 굵게 적혀 있다. 그 아래로는 “아리랑 이라는 번역된 제목이 세로로 적혀 있고 그 왼쪽에는 훨씬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朝

鮮人反抗者의 一代記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연재를 살펴보면, “Song of Ariran 이라는 영어 제목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아리랑 이라는 번역된 제목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朝鮮人反抗者의 一代記 라는 부제는 첫 번째 예에서처럼 제목 바로 옆 좌측이나 두 번째 예에서처럼 페이지 왼쪽 상단, 혹은 세 번째 예에서처럼 제목의 상단에 제목보다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1946년 10월	1947년 6월	1947년 10월

표 1. 『아리랑』 번역 표제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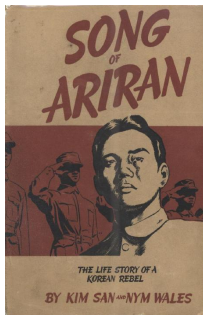


그림 1. Song of Ariran 원천텍스트 표지

종합하자면, 제목과 부제는 거의 그대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리랑 이라는 단어에 “노래 라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아는 조선인들이 독자만큼 “Song of Ariran 이 “아리랑 으로 번역된 것, 그리고 잡지 연재이므로 때

때로 편집 사정에 따라 제목과 부제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원서에 없는 내용이 번역서에 서 첨가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 연재의 경우, 제목 “*Song of Ariran* 의 원편에는 부제보다 작은 글씨로 “外國語로發表된 朝鮮人の 著書! 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이 문구는 이후 47년 10월호와 11·12월 합병호에서 다시 등장한다. 역자 혹은 편집자가 이 저서가 “외국어로 발표 되었으나 “조선인의 저서 라고 선택적으로 전유하면서 원천텍스트에서와는 달리 원저자성을 오로지 김산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기록한 이 작품이 외국어로 발표되었다며 감탄문 형식으로 강조하면서 이 작품의 내용과 그에 갖든 정신이 외국인에게도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문화가 서양에 비해 뒤쳐져 있다 단언하면서 외국의 저서를 번역하여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던(박지영 2009: 423) 해방공간에서 외국인이 조력한 흔적을 지우는 이러한 전략은, 이 저서의 권위를 서양의 그것과 대등하게 위치시키면서 김산의 독립운동 투쟁사와 그에 담긴 민족주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목 번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원문에는 없는 이미지가 제목 옆에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원천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재현하고, 이미지를 의뢰한 편집인 혹은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재현할지 결정한다(Pereira 2008: 108). 즉, 선택적으로 첨가된 이미지는 번역 텍스트 안에서 특정한 내러티브를 선택적으로 프레임 할 수 있는 것이다. 첫 회에는 표의 제일 첫 이미지에서 드러나듯 한 남성의 옆모습으로 추정되는 그림 혹은 사진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쇄의 질이 무척 나빠 그 이미지의 함의를 추측할 수 없다. 다른 삽화로는 몇 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에 삽입된 독수리 그림이 있다. 김산의 불굴의 의지와 용맹함을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더해 강조함으로써 그의 민족주의적 행위를 더욱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2.2 저자/역자명

일반 출판물, 즉 단행본 출판의 경우 표지에 저자와 역자의 이름이 기재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이름 기재의 순서와 활자의 크기에 따라 저자와 역자 사이의 위계가 드러나기도 하는데(Hermans 2010: 197), 「아리랑」은 저자명 생략을 통한 원저자간 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민족주의적 내러티브를 프레임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천텍스트 표지 하단에는 김산과 님 웨일즈의 순서로 두 저자의 이름이 나란히, 같은 크기의 글자로 적혀 있다. 원저자성을 “텍스트의 독창성, 유일무이성의 기원인 원저자 (임호경 2006: 61)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녀가 김산의 말을 “받아적기 만 했고¹³⁾ 본문이 모두 김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님 웨일즈가 원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원천텍스트 생산자는 그녀가 김산의 인터뷰를 이끌어내고 정리한 것만으로도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생각했거나, 아니면 무명의 김산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극동문제의 전문가였던 님 웨일즈의 명성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어떤 판단을 하였든 원천텍스트 생산자는 김산의 이름을 앞에 두되 김산과 함께 님 웨일즈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녀의 원저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번역본에서는 원본과는 달리 님 웨일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잡지 연재물로 번역되었기에 번역본에서는 일반 출판물과는 달리 매 호마다 기사의 첫 장에 그 저자와 역자의 이름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첫 연재에서 마지막 연재에 이르기까지 저자명의 위치에는 김산의 이름만 소개될 뿐, 님 웨일즈는 어느 곳에서도 “저자 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 논하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역자 서문에서 “서문 과 “해설 을 쓴 사람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그녀의 제한적 역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자 혹은 편집자가 님 웨일즈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제목 번역에서도 나타났듯이 김산을

13) 저자 님 웨일즈는 서문에서 김산이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으며, 자신은 그가 한 이야기를 노트에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스무 두 차례에 달하는 만남 동안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며 얻은 내용을 님 웨일즈는 노트 7권 분량으로 정리하였으며 (고명철 2016: 8에서 재인용), 그의 이야기를 자신이 구성하고 편집하고 다시 적긴 하였으나, 김산이 한 이야기와 거의 다름이 없이, 영어만 가독성을 위해 손을 본 때를 제외하고는 그가 말한 그대로 썼다고 밝히고 있다(Kim and Wales 1941, xxiv-xxv).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저서의 유일한 저자로 자리매김 시키는 전략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독립운동가 김산의 민족주의적 삶은 더욱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4.2.3 서문 번역

원텍스트가 번역될 때는 원텍스트의 결텍스트가 번역될 뿐만 아니라, 번역본 자체의 결텍스트 역시 생성된다(지영래·박선희 2010; 박선희 2015). 번역된 내러티브 담론에는 언제나 “제 2의(second) 목소리(voice)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역자의 담론적 존재를 의미(Hermans 2010: 196-198)하는데, 번역을 통해 새로이 생성된 번역물 자체의 결텍스트에서 숨겨져 있던, 혹은 주목 받지 못 하였던 번역가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결텍스트 중 역자가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텍스트 안에 삽입된 괄호 안의 정보, 역자 서문이나 각주 등이 있다. 특히 역자 서문의 경우, 텍스트의 화자 “I 가 역자 서문에서만큼은 번역자로 치환되면서(first-person displacement) 역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된다(Hermans 2014: 287). 베이커가 언급한 대로 역자가 서문 등의 결텍스트를 통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내러티브 프레이밍에 나서는 것이다(Baker 2010b: 121-24).

*Song of Ariran*의 원천텍스트에는 님 웨일즈의 서문이, 번역 텍스트에는 역자 서문이 실려 있다. 저자 서문에서 님 웨일즈는 자신이 김산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아리랑이 어떻게 책으로 엮어질 수 있었는지 등을 상술한다. 즉, 우연히 김산을 만난 후 책 출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자로서 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 서문은 번역되지 못하고 도착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역자 서문만이 추가 되어 있다:

譯者が 中國上海 東亞??大學에 在學하고잇든 一九四二年?이엇다고 記憶하고잇다. 나는 ?? 上海로 ?名한 ???에서 이 冊을 처음으로 發見하였다. 그때는 바로 朝鮮에 關한 책이라면 무엇이고 닥치는데로 읽든 때이라 나는 ??不拘하고 이 冊을 비리다 읽엇다. 밤 열한時가 되면 寄宿舍의 電燈은 消燈됨으로 나는 石油램프를 사다가 키여노코 耽讀하였섯다. 그지 음만하여도 上海의 우리사람들은 우리나라의 紀念日을 마지하면 눈물에 어린목소리로 愛國歌를 부드른 ?이엇다. 그러나 이 冊이주는 感激과 情?

은 愛國歌를 부를때의 그것보다도 더한 現實感과 迫力을 주어 나의 피를 끓게 하였든 것이다. 나는 그러한 民族의 ?스러운 時代에 그와가치 짝은??을 民族國家에 貢獻할수잇섯든 筆者를 몹시 ??하는 한편 滿腔의 敬意를 하야마지안잇든 것이다. 今般 偶然的機會로 解放된故土에 도라와서 이 冊의 翻譯을 付託받게됨에 나는 나의 力量의 不足함을 무릅쓰고 이 일을 마튼 것이다. 왜? 또한번 새로운 感激으로 이 冊을 읽을때에 나는 이것을 나 혼자서 獨占하기에는 너무나 心臟이 튼튼지못한가답이다. 何如間 拙譯이나마 同族여러분과함께 이 感激을 가치하자는데에 翻譯의本質은 잇는것이 니 널리??하야주시기바라며 原著者에게도 紙面을 빌리어 失?이지만 感謝의 뜻을 表하는바이다.

그리고 一九四一年 뉴-욕 존-데이?社에서 發行된 原書에는 나임 웰스의 序文이잇스나 이것은 本文末尾에 同氏에衣한 解說과함께 紹介하기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하여둔다.¹⁴⁾ (1946년 10월호: 167)

서문 번역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역자 서문에 민족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서문에는 역자가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발견한 후 읽고 느낀 감격과 번역 동기 등이 적혀 있다. 역자는 이 책을 입수한 1942년, 재외 조선인들이 고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회고하면서 “민족국가 를 위해 투신한 김산에 특별한 감정을 가졌음을 토로한다. “피를 끓게 하였다, “민족국가에 공헌하였던 필자 에 대한 “만공의 경의, *Song of Ariran*이 주는 심장이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감격이라는 표현 등이 포함된 서문을 추가하면서 역자는 김산의 일대기를 통해 독자들이 그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자긍심, 꺾이지 않는 민족주의 정신에 주목하도록 독서 행위를 안내하는 동시에 김산의 일대기를 빛나는 민족주의 정신의 산물로 프레이밍 하고 있다.

둘째는 저자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님 웨일즈의 서문은 모두 번역이 끝난 후 해설과 함께 마지막에 번역하기로 한다는 역자의 언급이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아리랑이 완역되지 못하면서 님 웨일즈의 서문이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역자 서문은 제일 먼저 실린 반면 처음부터 님 웨일즈의 서문과 해설은 제일 나중에 신기로 작성되었다는 점, 님 웨일즈가 저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서문 어느 곳에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

14) 이 서문과 이후의 예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본을 그대로 따랐다. 인쇄 상태 불량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물음표로 표시하였다.

김산을 “민족국가에 공헌하였던 필자 라고 썼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역자는 내러티브 프레이밍의 전략 중 선택적 전유와 참가자 재배치를 결합하여 김산을 외국에서 인정받은 작품의 유일한 저자이자 주인공으로 지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자의 개입을 통해 김산의 투철한 민족주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로서 추구했던 가치가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다.

4.3 본문 분석

지금부터는 본문, 그 중에서도 문장과 구문 차원에서 선택적 전유와 레이블링, 참가자 재배치 전략이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 프레이밍 효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기로 한다.

[예문 1]

ST: *Cushioned-paw, Imperialism* (19)

TT: 壓迫의 손 帝國主義 (1947년 1월호: 151)

위의 예는 하위 장 제목으로, 조선인들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마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압박 정도를 느슨하게 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역자는 “*Cushioned-paw, Imperialism* 이라는 제목을 “압박의 손 제국주의 로 레이블링 하면서 일본의 유희책마저도 제국주의 통제의 일환으로 보고 그 비윤리성을 강화하였다.

[예문 2]

ST: They have no respect for women (13)

TT: 그 사람들은 女子를 賤待한다. (1946년 10월: 176)

이 예는 어린 시절 김산과 어머니의 대화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대화에서 김산의 어머니는 조선을 무단 점령한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였는지 설명한다. 이 예에서는 긍정적 함의가 있는 “존중 이 포함된 “no respect 가 삭제되고 “천대 라는 새로운 단어로 대체되면서 천대

의 주체인 일본군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가 프레이밍 되었다. 예문 1과 2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점령자들에게서 받은 멸시와 천대, 일본인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면서 반제 민족주의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고 있다.

[예문 3]

S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public schools out of tax money (15)

TT: 朝鮮總督府는 税金으로 朝鮮人과 日本人의 公立學校를 維持하였었다 (1946년 10월: 177)

이 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the Korean government 에 대한 레이블링 전략이다. 위의 예에서 저자는 조선총독부를 “the Korean government 라고 지칭하고 있다. 김산이 조선총독부를 “the Korean government 라고 지칭하였는지 아니면 님 웨일즈가 집필 과정에서 미국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의 정부 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역자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착취를 당하는 조선인의 세금으로 압제자 일본인을 위한 학교를 지은 것이 조선인들의 정부가 아닌 “조선총독부 라고 정확히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선 두 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문 4]

ST: When I told him that I wanted to go away to study, he said, “That is good. If your father cannot help I will send you money when you need it, because I believe you are a fine boy and that you have a splendid future. (47)

TT: 내가 工夫하러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을때에 그는 『쫄소. 萬一 當身父親께서 援助하실수업다면 내가 當身이 必要할때에 돈을보내주겠소. 나는 당신이 훌륭한少年이며 또 당신에게는 華麗한將來가 잇을 것을 나는 믿고잇으니까』(1947년 2월호: 157)

[예문 5]

ST: An Ch'ang-Ho had taken a good deal of personal interest in me in Shanghai (66)

TT: 安昌浩는 上海에있을때에 몹시나를좋와하야 (1947년 6월호: 130)

예문 4는 김산과, 김산을 보살피 준 목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때 김산의 나이는 십대 초반이며, 목사의 나이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김산 또래의 자식을 둔 것이 분명히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화의 상대가 주인공 김산의 아버지 또래임이 분명함에도 목사는 김산에게 존대의 어미를 추가하면서 참가자 재배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자립하지 못한 어린 김산이 아닌 어른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할 만큼 존경할 만한, 그리고 큰일을 해낼 가능성이 보이는 인물로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예문 5에서도 당대 존경 받는 독립운동가의 한 명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김산을 “몹시 좋아 하였다”고 번역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재조정하였다. 이 두 예는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의 평판을 원천텍스트보다 더 긍정적으로 강화하면서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더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문 6]

ST: though he was himself a graduate of Tokyo Imperial Military Academy. (51)

TT: 그러나 軍士官學校의 卒業生이였었음에도 不拘하고 그는... (1947년 3·4월 합본호: 152)

위의 예문은 김산이 존경하는 항일독립운동가, 이동휘에 대한 묘사이다. 김산에 따르면 이동휘는 일본의 동경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번역본에서는 “동경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군사관학교의 졸업생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였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공부한 모든 이들이 친일파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여러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신문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유학 길에 오르고, 그 후 그 지식들을 독립운동에 사용하였다. 그런데도 동경군사관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전유를 한 것은, 일본과 존경 받는 독립운동가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서 혹시 모를 오해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예문 7]

ST: Both pledged themselves to democracy (30)

TT: 서로 民主主義를 굳게 盟誓하였다 (1947년 1월: 153)

해방기는 좌·우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자 각축전을 벌인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기도 하였다. “민주주의 라는 용어는 향후 설립될 새로운 조선의 정부를 식민 상태는 물론 조선의 왕정과도 구분해 주는 단어가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파의 정치인들은,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민주주의 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였다. 즉, “민주주의 라는 용어는 조선인들의 공통된 염원이 담긴 단어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사회주의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 등으로 명명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박지영 2014: 53-54).

본문에서 “both 에 해당하는 이들은 중국의 5·4운동에 참가한 중국인들과 3·1운동에 참가한 조선인들을 의미한다. 특히 5·4운동은 중국인들에게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의 길 중 하나로 인식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이후 중국공산당의 창당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이정남 2019: 86). 그런데 역사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굳게 맹서하였다고 덧붙이면서, 두 운동의 참가자들이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염원하는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고 있다. 우파에 우호적인 미군정에 귀속된 기관에서 이러한 번역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중간과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좌파 역시 끌어안으려는 기관의 노력을 드러내 주는 것은 물론, 이 운동에 투신하였던 김산의 일생 역시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문 8]

ST: “Sing-song girls are a defense against marriage, Kim would remark.

“For this we can thank them. They leave our revolutionaries free agents.

The price is not too high. (71)

TT: 생략

이 문장은 김산의 여성관과 결혼관에 관한 장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여기서 “Kim 은 김산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충창이라는 독립운동가이다. 김충창은 화류계 여인들이 남성의 욕구 분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 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독립운동가가 한 말이라고 기사에 포함시키기엔, 독자들이 독립운동가에게 갖는 경외심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검열 의 일종으로 이 문장을 삭제시키는 선택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예문 9]

ST: Canton Prepares (89)

TT: 廣東은 覺悟하다 (1947년 10월: 161)

이 예는 하위 장의 제목으로, 이 장에서는 김산과 광동의 조선인들이 혁명운동을 위해 광동에서의 봉기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 예에서 역자는 “광동은 준비한다 라는 하위 장 제목을 “각오하다 로 다시 레이블링 하여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가진 희생정신, 결의 등을 강조하며 민족주의 내러티브를 강화하였다.

5. 결론

이 논문은 해방기 당시 서울신문사가 정치적 활동가로 구성된 기관임을 밝히고, *Song of Ariran* 역시 번역 기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번역될 수 없었다는 점을 역본 선택 및 번역 전략 선택 등을 통해 논증하였다. 특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던 해방기, 위기를 극복하고 열강과의 협력 및 좌우합작을 통한 자주적 통일정부를 꿈꾸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정치적 열망이 *Song of Ariran* 번역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Song of Ariran*의 번역은 번역 기관인 서울신문사와 미군정의 대한정책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중간파들을 이용하여 미소

공위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미군정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 서울신문사는 당시 좌우합작과 반제, 민족제일, 자주독립을 외치던 정치적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임원진과 편집진까지 참여하는 편집 방침으로 인해 편집진은 번역자 선정에서부터 역시 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Song of Ariran*이라는 텍스트 선정은 이 작품이 일본 제국주의 타파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라는 점에서 반제, 자주독립을 기조로 삼았던 번역 기관, 서울신문사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 김산이 공산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였으며, 중국공산당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던 점, 그리고 훗날 국공합작에도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중간파 활동가로 구성된 서울신문이 이 작품의 번역을 통해 (미군정에 우호적인 우파는 물론) 좌파까지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합작운동을 성공리에 이끌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서도 선택적 전유와 레이블링, 참가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반제, 협력, 자주독립이라는 중간파적 민족주의 내러티브가 프레임되었음을 밝혔다. 우선 결텍스트 번역 분석을 통해서도 저자인 님 웨일즈의 목소리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오직 김산만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작품의 단독 저자가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았음이 강조되고, 결국 조국 독립을 위해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인생을 불사르는 민족주의적 내러티브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역자가 서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독자들이 텍스트의 민족주의적 성격, 반제정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음을 논하였다. 본문 분석을 통해서도 역자가 일본 제국주의의 비윤리성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민족주의 내러티브를 프레임 하였음을 밝혔다.

서울신문사는 당시 가장 인기 있고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잡지 『신천지』를 통해 기관의 이데올로기를 십분 반영한 이 작품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재하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소머스과 베이커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서울신문사는 미소공위가 교착상태에 있던 당시, 본문 속 독립운동가들처럼 굳건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미·소 열강의 도움을 잠시 받되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역을 통해 드러내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들 역시 「아리랑」 연재를 통해 국가 건설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서울신문사는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우여곡절 끝에 남한 정부에 귀속이 되면서 큰 이데올로기적 격변을 겪게 된다. 중간파 임원들은 모두 대통령 이승만의 반공 교시에 동조하는 반공주의자나 보수적 문인들로 교체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반공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출판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중간파들의 목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천지』는 반공 내러티브를 프레임하는 잡지로 탈바꿈하였다. 반공 내러티브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Song of Ariran*은 1984년에야 민주화운동의 흐름에 힘입어 완역본으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협력, 반제, 민족제일, 자주독립의 가치를 내걸고 삶을 불살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던 한 민족주의자의 일대기를, 비록 실패하였지만 동일한 꿈을 가지고 역사의 거센 흐름에 맞서려 했던 해방기 중간파들의 정치적 투쟁사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분석 텍스트

Kim San and Nym Wales (1941) *Song of Ariran*, New York: John Day.

신재돈 옮김 (1946-1948) 「아리랑」, 『신천지』, 서울: 서울신문사.

강지혜 (2005)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번역자의 역할」, 『번역학연구』 6(2): 7-28.

고명철 (2016) 「김산, 동아시아의 혁명적 실천, 그리고 ‘문제지향적 증언서사」, 『한민족문화연구』 54: 7-44.

김동선 (2016) 「해방전후 하경덕의 활동과 건국인식」, 『송실사학』 36: 221-265.

김동선 (2014) 「미군정하 서울신문의 경영과 정치적 성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1-28.

- 구』 79: 130-182.
- 김동선 (2010) 「해방 직후 매일신보의 성격변화와 『서울신문』의 창간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3: 155-200.
- 김윤성 (1965) 「신문부수를 육박했던 신천지」, 『현대문학』 11(8): 234-236.
- 김인식, 남광규, 유병용 (2007) 「해방 전후 중간과 민족주의의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5-40.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박재은 (2008) 『해방 후 한국 문학과 『신천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14) 「복수의 ‘민주주의’들 -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0): 49-89.
- 박지영 (2009) 「해방기 지식 장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대동문화연구』 68(0): 423-480.
- 신인섭, 오진환, 이광재, 임준수, 차배근 (2001)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신재돈 (1946) 「現代中國社會의 封建的遺制」, 『신천지』 1(9): 49-57.
- 양진오 (2019) 「김산의 아리랑은 어떻게 책이 되었나」, 『국어교육연구』 69: 293-318.
- 오영식 (2014) 「『신천지』 (1946. 2-1950.6) 총목차 소개」, 『근대 서지』 10: 669-737.
- 이봉범 (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199-267.
- 이정남 (2019) 「5·4 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인가?」, 『현대중국연구』 21(2): 83-112.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파주: 열린책들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최덕교 (편저) (2004) 『한국잡지백년 3』, 서울: 현암사.
- Baker, Mona (2010a) ‘Translation and Activism: Emerging Patterns of

- Narrative Community’, in Maria Tymoczko (ed) *Translation, Resistance, Activism*, Amherst & Boston: U of Massachusetts.
- Baker, Mona (2010b)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ed) *Critical Readings in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 Oxon: Routledge.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Oxford & New York: Routledge.
- Ewick, Patricia, and Susan Silbey (1995) “Subversive Stories and Hegemonic Tales , *Law & Society Review* 29(2): 197-226.
- Fisher, Walter R. (1985) “The Narrative Paradigm , *Journal of Communication* 35(4): 74-89.
- Genette, Gé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Cambridge & Melbourne: Cambridge UP.
- Harding, Sue-Ann (2014) “‘But We don’t Read Professor!’ Translation, Bloomsbury Qatar Foundation Publishing, and Building a ‘vibrant literary culture’ ,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2(4): 511-533.
- Harding, Sue-Ann (2012) *Beslan: Six Stories of the Siege*, Manchester & New York: Manchester UP.
- Hermans, Theo (2014) “Positioning translators: Vioces, Views and Values in Translation , *Languages and Literature* 23(3): 285-301.
- Hermans, Theo (2010)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 in Mona Baker (ed) *Critical Readings in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 Oxon: Routledge.
- Kang, Ji-Hae (2014) “Institutions translated: discourse, identity and power in institutional mediation ,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2(4): 469-478.
- Koskinen, Kaisa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An Ethnographic Study of EU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Mossop, Brian (1990) “Translating Institutions and “Idiomatic Translation , *Meta* 35(2): 342-355.
- Pereira, Nilce M. (2008) “Book Illustration as (Intersemiotic) Translation ,

Meta 53(1): 104-119.

Somers, Margaret R.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 *Social Science History* 16(4): 591-630.

자료대한국사: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2&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dh_001_1945_08_16_007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2019 년 11 월 검색)

[Abstract]

Translation of *Song of Ariran* by Seoulshinmunsa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Moderates' Nationalism in the Liberation Period in South Korea

Kim, Ye Ji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translation of *Song of Ariran*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41. This biography of Kim San, a Korean independent movement fighter, was first introduced and translated, though partly, through a monthly magazine titled *Shinchunji* by the Seoulshinmunsa company in 1946. Since the executives and the editors of the company consisted of nationalistic, moderate political activists who envisioned an anti-imperial, anti-feudal and sovereign nation as their new nation, it was inevitable that, to some extent, the translation mirrored the political objectives of the translating agents. The translation of *Song of Ariran*, therefore, is expected to show how this translation was used to promote the political and nationalistic narratives in the midst of intense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diverse political factions of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national-building process in the Liberation Period. Drawing on Mona Baker's socio-narrative approach,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aims to explore to what extent the policies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translating institution contributed to the framing of nationalistic narratives. More specifically, it intends to show how the source text was manipulated in the target texts inclusive of paratexts, and how the narrative framing strategies and outcomes corresponded with the political cause of the moderate activists, i.e.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overeign nation free from the intervention of the US and the USSR.

▶ Key Words: *Song of Ariran*, Liberation Period, Nationalism, Institutional Translation, Narrative Framing

▶ 주제어: 『아리랑』, 해방기, 민족주의, 제도번역, 내러티브 프레이밍

김예진

성균관대학교 번역기술대학원 시간강사

yejinkim0131@skku.edu

관심분야: 번역사, 번역의 정치성, 제도번역, 내러티브 프레이밍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